

여수지역 숙원 '금오도 해상교량' 본궤도 오른다

(금오도-대두라도-월호도 3.41km 지방도)

전남도, 금주 조달청 턴키계약 의뢰...사업비 2천367억
이달 입찰 공고 내년 상반기 업체 선정...2026년 착공
전남도·여수시 예산 50% 분담 '광역-기초 상생' 주목

여수지역 숙원 사업인 2천367억원 규모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. 특히 지방도의 경우 순수 전남도비 100%로 추진되는 것과 달리,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금오도 해상교량 사업 추진을 위해 전남도와 여수시가 각각 50%씩 사업비를 분담키로 해 광역지자체-기초지자체 간 상생 발전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.

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조달청에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턴키 계약을 의뢰할 계획이다.

앞서 금오도 해상교량 사업은 올해 3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, 4월엔 국토교통부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도 완료했다.

전남도는 지난 5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기본계획을 고시했다. 또 입

찰안에서 기술심의회와 계약심의회도 마무리했다.

조달청 의뢰 후 이달 내에 입찰 공고를 내고 5개월의 기본설계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엔 턴키 실시설계 적격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. 이어 6개월간 실시설계가 이뤄지면 이르면 2025년 말, 늦어도 2026년 초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판단이다.

지방도 863호선인 금오도 해상교량은 여수 금오도-대두라도-월호도를 잇는 3.41km 구간이다.

해상교량 1.53km(2개소), 접속도로 1.88km다. 사업비는 2천367억원(공사비 2천97억원, 설계비 등 부대경비 183억원, 보상비 87억원) 규모다.

금오도 해상교량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2022년 10월 금오도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가시화됐다. 당시 김 지사는 "사업비가 많이 들어 결정 과정이 힘들었지만 여수시와 힘을 합쳐 해상교량을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"고 밝힌 바 있다.

김 지사의 언급처럼 실제 금오도 해상교량은 전남도와 여수시의 사업비 분담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.

일반적인 지방도 사업은 전액 지방비(도비)로 추진된다. 전남도가 한해 전체 지방도 사업에 투입하는 총 예산 규모는 2천억원 안팎이다. 재정 상황이 열악한 전남도가 단일 사업에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지방도 해상교량

사업을 단독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다.

결국 전남도와 여수시가 협의를 통해 사업비 50% 분담을 결정하면서 지역민 숙원 사업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 셈이다.

금오도 해상교량과 현재 공사 중인 국도 77호선 화태-백야 연도교가 연결되면 '비령길'로 유명한 금오도는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여수 대표 섬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.

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"지방도 해상교량의 경우 사업비 규모가 커 도비로만 충당하기엔 쉽지 않다"며 "금오도 외에도 신안 장산도-자라도, 완도 소안도-구도, 진도 의신면-접도



등의 해상교량도 기초지자체와 사업비 분담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"고 밝혔다.

유 국장은 또 "고흥 영남에서 여수 돌산까지 10개 섬을 잇는 311km 연장의 국도 77호선 백리섬섬길을 금오도까지 연장하면 전남 동부권 해양관광 활성화에 속도 가 붙을 것"이라고 강조했다. /김재정 기자



진격의 김도영 '40-40' 성큼

18G 남은 현재 35홈런·36도루... '3-30-30-100-100'도 눈앞



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'슈퍼스타' 김도영의 40홈런-40도루 대기록 달성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.

김도영은 지난 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'2024 신한SOL뱅크 KBO리그'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3-5로 뒤진 7회초 삼성의 2번째 투수 최지광으로부터 좌측 담장을 넘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. 시즌 35호 포드. ▶관련기사 16면

지난달 15일 키움전에서 KBO 역대 최연소, 최소 경기 30홈런-30도루 대기록을 달성한 김도영은 이제 40-40 기록에도 성큼 다가섰다.

40-40은 2015년 외국인 타자 테임즈(전 NC 다이노스)가 KBO리그 최초로 개척한 전대미문의 업적이다.

김도영이 40-40 기록을 달성하게 되면 KBO 국내 선수로는 최하다. 목표 달성에는 도루보다 홈런 개수가 최대 관건이다. 올 시즌 KIA의 128경기 중 124경기에 출장한 김도영은 현재 홈런 35개, 도루 36개를 기록 중이다. 출장 경기 수로만 따지면 김도영의 경기당 홈런 수는 0.28개다. 35경기 당 1개의 홈런을 때려내고 있다. 이 페이스라면 KIA의 남은 정규리그 18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김도영의 홈런 갯수는 대략 5개다.

김도영이 40홈런까지 5개가 필요한 것을 감안할 때 산술적으로 대기록 달성은 가시적이다.

이와 함께 호타존속에 정교함까지 갖춘 타자를 상징하는 '트리플 쓰리'(3할-30홈런-30도루) 달성도 예약해 놨다. 이미 30-30을 돌파한 김도영의 현재 타율은 0.347로 시즌이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'트리플 쓰리' 기록을 완성시킬 전망이다.

KBO리그에서 트리플 쓰리 타이틀을 보유한 선수는 지금까지 6명 뿐이다. 첫 기록은 1997년 이종범(해태)이 세웠고, 1999년 홍현우(해태)·데이비스(한화)·이병규(LG), 2000년 박재홍(현대)을 거쳐 2015년 에릭 테임즈(NC)가 마지막으로 달성했다. 여기에 '3할-30홈런-30도루-100타점-100득점' 꿈의 기록에도 이번 주 KBO 리그 역사상 3번째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. 현재 0.347 타율-35홈런-36도루-98타점-124득점을 기록 중인 김도영은 타점 2개 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.

'3-30-30-100-100'은 2000년 박재홍과 2015년 테임즈만 밟아본 역대급 기록이다.

2024 시즌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KBO 새 역사를 열고 있는 김도영의 방망이에 야구 팬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. /주홍철 기자·사진=기아타이거즈제공

영암 출신 유해란 LPGA FM 챔피언십 우승



영암 출신 프로골퍼 유해란이 연장 승부 끝에 미국 LPGA 투어 시즌 첫 승 및 통산 2승을 신고했다.

▶관련기사 16면

지난해 LPGA 투어 신인왕 유해란은 2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턴의 TPC 보스턴(파72·6천380야드)에서 열린 FM 챔피언십 심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9개와 보기 1개로 8타를 줄여 고진영과 15년과 27타 동타를 이룬 뒤 1차 연장전에서 파를 잡아보기에 그친 고진영을 제치고 신설 대회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다. 11개월 만에 LPGA 투어 통산 2승째를 달성한 유해란은 지난 6월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양희영에 이어 올 시즌 우승을 거둔 2번째 한국 선수가 됐다. /박희중 기자

Today

광주사·국회·정당 정책파트너로 3면
계약서도 없이 외부인력 고용 6면
KIA 매직넘버 12·방망이로 승부 16면

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!



놓쳐서는 안될 마지막 기회입니다.

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전북, 충북, 강원도에도 여러 개 있는 의과대학이 전남에만 없습니다.

은 도민이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, 마침내 정부가 '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추진'을 발표했습니다.

- ◆ 대통령 '민생토론회' ('24년 3월)
'전남도가 어느 대학에 의대를 설립할지 의견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'
- ◆ 국무총리 '정부합동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' ('24년 3월)
'의대가 없는 전남의 경우, 의견 수렴해 신청하면 정부가 신속 추진'
- ◆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'국회 상임위원회' ('24년 6월)
'교육부는 전남도 공모 결과를 존중해 협의 진행'
- ◆ 보건복지부장관 '국회 상임위원회' ('24년 7월)
'전남도가 빨리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전남 국립의대 신설 신속 검토'

전남도가 정부 요청대로 대학을 추천해야 정부가 국립의대 신설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대학 추천이 유일한 해법입니다. 전남도는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'공모 방식에 의한 정부 추천대학 선정' 용역을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.

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! 양 대학이 참여하고 은 도민이 합심해 뜻을 관철해야 합니다.

전남도는 추천되지 않은 지역과 대학에 대해서도 추천된 지역에 버금가는 의료혜택과 지원책을 마련하여 어느 지역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.

도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!

